

## 제17호 (주)신창전기 이오희 과장



### 안전확보는 현장의 소리와 함께 호흡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

**씨**는듯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이더위를 잠시 잊게 해 줄 푸르른 산과 나무들로 둘러싸인 안산반월공단내  
(주)신창전기에서 주변 경치만큼이나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의 이오희과장을 만났다.

#### ■ 꾸준히 정착시킨 안전활동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만들기를 좋아하고 대학에서도 기계공학을 전공한 이오희과장은 졸업과 동시에 1978년 설립되어 자동차 Keyset, Combination Switch 등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주)신창전기에 입사하여 11년동안 생산기술과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꾸준히 정착시킨 안전활동으로 국제품질인증인 QS-9000, ISO-14000은 이미 획득하였고, 현재 TS-16949 품질인증을 준비 중에 있어 (주)신창전기를 세계 최고 품질의 자동차 Keyset 생산회사로 발전시킬 것이라는 그의 각오는 대단하다.

입사 초기, 사회적으로 안전의식이나 활동이 미흡하던 시절에는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안전교육 및 활동을 통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무재해를 이룩하고 있어 이오희과장의 숨은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 ■ 안전의 확보는 현장의 소리와 함께...

안전의 확보는 현장의 소리와 함께 호흡하고 실천할 때 이루어진다는 이오희과장은 사무실도 현장에 두어 근로자들과 함께 숨쉬고 생활하며 안전의식을 정착시킨다. 항상 보람을 가지고 업무에 임한다는 그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가짐은 안전관리자로서 우리내 현장의 귀감이 되고 있다.

효심이 지극한 큰이들의 풍모가 느껴지는 그는 특히 고령자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8-9년인 이곳에서 고령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반물의 무게를 집중 관리하고 Bx 적치 운반시 스프링 비란스나 유압리프트의 운반기구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발벗고 나선다.

안전관련 체계는 정착되어 가고 있는 반면 우리의 안전의식이 느슨해짐을 지적하며 헤이해진 마음을 다잡고 안전을 발전시키자는 이오희과장의 다짐처럼 우리내 안전의 끈도 다시 조여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성호연기자〉